전 세 계 근 로 자 들 은 단 결 하 라 !

김 정 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 년 4 월 30 일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녀성간부대렬을 체계적으로 늘이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당의 이 방침이 잘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것없이 간부들은 거의다 남자들이고 녀성간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간부구성에서 녀성들의 비률은 매우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최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녀성간부들을 꾸리는 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을 엄격히 지적하시고 녀성간부대렬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인입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합니다. 수레가 한쪽바퀴만 돌아가서는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가 빨리 발전할수 없습니다. 녀성

들을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로력구성을 보면 녀성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녀성간부는 많지 못합니다.

우리 당은 벌써 해방직후에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와 일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간부로서 활동할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있습니다. 녀성간부를 많이 키워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직위와 평등권이 더욱 완전히 보장될수 있습니다.

녀성간부들을 늘이는것은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녀성들에게는 좋은 성품이 많습니다. 녀성들, 특히 우리 당의 주체교육을 받은 젊은 녀성들에게는 시키면 시

키는대로 일하는 성실한 품성도 있고 맡은 일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높은 책임성도 있습니다. 또한 녀성들은 대체로 성격이 부드럽기때문에 그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면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도 좋습니다. 우리 녀성들에게는 모든 일을 이악하게 하며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하는 좋은 품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 같은것도 맡기면 잘할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녀성간부들가운데는 남자들보다 경제관리를 더 잘하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녀성들이 관리위원장을 하는 협동농장들을 봐도 다 당의 농업정책을 잘 관철하고 살림살이를 잘해나가고있습니다. 녀성들이 가지고있는 좋은 품성을 잘 살리고 그들을 옳게 교양하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착실히 지켜나가는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수 있습니다.

녀성들은 체질상 특성으로 보아도 관리부문이나 사무부문 같은데서 많이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기술혁명이 완성되지 못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힘든 부문은 남

자들이 맡고 힘이 덜드는 관리부문이나 사무부문 같은것은 녀성들이 많이 맡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촌에 나가보면 가방을 끼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거의다 남자들이며 공장, 기업소들에도 헐한 사무부문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능력과 체질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우는것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남북의 문이 열리면 남반부에 나가 활동할수 있는 녀성일군들을 많이 키워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반부에서 녀성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여야 하며 모든 녀성들을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남반부에서 녀성운동을 발전시키고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자면 지금 있는 얼마 안되는 녀맹일군들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남반부에서 당 및 정권 기관, 근로단체, 경제문화기관들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능

력있는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워놓아야 합니다.

녀성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우며 모든 부문에서 녀성간부들을 빨리 늘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고귀한 간부사업전통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녀성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유능한 간부로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장차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간부대렬을 준비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수많은 녀성들을 혁명대오에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몸소 교양하시였으며 무장투쟁과 지하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체계적으로 단련육성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녀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

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녀성혁명가, 녀성지휘관으로 자라났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도 로동자, 농민 출신의 수많은 평범한 녀성들을 친히 료해하고 선발하시여 훌륭한 녀성일군으로 키우시였습니다.

지금 활동하고있는 녀성간부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체계적인 교양을 받으며 자라난 일군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농촌의 보잡이나 공장의 기대공으로부터 유능한 정치일군으로 자라난 녀성간부들도 있고 정규적인 교육체계와 양성체계를 통하여 국가, 경제, 문화 기관의 중견간부로 자라난 녀성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직책을 맡아 일하는 과정에 간부로 자라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간부대렬을 늘이기 위하여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나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옳게 받들어 일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녀성간부들이 더 많이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간부로 많이 키우자면 녀성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일군들에게는 녀성들을 홀시하고 차별하는 그릇된 사상관점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녀성들을 간부로 키우는 사업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물론 녀성들을 당 및 국가 기관의 간부로 사업하게 하자면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국가가 일정한 부담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시끄럽게 여기면서 녀성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혁명적시책에 의하여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보장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훌륭히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

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일 탁아소, 유치원들뿐아니라 주 탁아소, 유치원들도 많이 꾸려지고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도 더 잘 갖추어지고있습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많은 힘을 들여 녀성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훌륭히 갖추어주고있으나 우리 일군들이 녀성들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녀성간부들이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녀성들은 녀맹사업이나 할수 있지 다른 부문의 간부로 일하기는 적합치 않은것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입니다. 녀성들도 당기관에서 일하면 당일군으로 되고 행정경제기관에서 일하면 행정경제일군으로 되는것이지 녀성이라고 하여 반드시 녀맹일군으로만 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적지 않은 기관들에서는 녀성들을 부원으로나 배치하고있으며 간부로 등용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믿고 대담하

게 일을 맡기는것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지키게 하면서 마치 부대로력처럼 취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녀성들이 시집을 가고 아이나 낳게 되면 일을 축내지 못한다는 구실을 붙여 남자들과 바꾸어놓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처럼 녀성일군들을 홀시하다보니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적지 않은 녀성들도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녀성일군들을 홀시하고 차별하는것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당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하여 오래전부터 투쟁하여왔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 속에는 아직도 낡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그것은 녀성들에 대한 관점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녀성간부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녀성일군들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모

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녀성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급 당기관에서 녀성들을 많이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당기관에서부터 녀성들의 비률을 높여야 전반적인 녀성간부대렬을 빨리 늘일수 있습니다. 녀성당일군들을 많이 키우면 당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을뿐아니라 다른 부문들에 준비된 녀성간부들을 많이 보내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급당위원회로부터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기관들에서 녀성일군들의 비률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능력있는 간부로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기관뿐아니라 근로단체기관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도 녀성간부비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로청대렬에 남자보다 녀성이 더 많지만 녀성사로청간부는 얼마 없습니다. 녀성간부를 꾸리는데서는 직맹, 농근맹도 같은 형편입니다. 근로단체간부들을 녀성일군들로 많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행정경제기관들에도 녀성간부들을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경제사업을 하자면 실무도 있어야 하기때문에 젊은 녀성들을 처음부터 높은 직위에 배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경제기관들에서도 부직간부자리 같은데 녀성들을 배치하여 일정한 기간 실무를 배우게 한 다음 체계적으로 등용하면 그들을 높은 직위에 올려놓을수 있으며 녀성간부의 비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지방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는 물론, 중앙기관들에도 녀성일군들을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기관들은 거의다 남자들로 꾸려져있습니다. 중앙기관이라고 하여 녀성들이 일하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중앙기관들에도 젊은 녀성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여 녀성간부의 비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여 잘 키우면 그들가운데서 위원장, 부장도 나올수 있고 부총리도 나올수 있습니다.

녀성간부는 생산현장에서 단련된 핵심녀성들속에서 선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동계급속에서 녀성간부를 많이 제발하여야 합

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입니다.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로동계급출신으로 꾸리는것은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입니다. 물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간부대렬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있는 일군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에만 매달려 간부대렬을 늘이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간부대렬을 학생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녀성간부를 선발하는데서도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세포비서나 그밖에 초급일군으로서 일을 잘하는 녀성들을 적극 제발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녀성간부는 농촌의 핵심녀성들속에서도 선발하여야 합니다. 농업전선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녀성일군들을 잘 키우면 그들속에서도 간부들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 녀성간부들을 빨리 늘일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녀대학생들입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투쟁속에서 대학생들을 유능한 혁명간부로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물론 대학들은 우

리 당의 민족간부양성기지이며 대학생들은 다 앞날의 민족간부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학들에서 교수교양의 질을 높여 모든 대학생들을 앞날의 유능한 민족간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갓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경험도 어리고 정치적단련도 부족하므로 그들을 혁명실천을 통하여 단련시키는것이 필요합니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대학생들을 단련시키는데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3대혁명소조에 나가 사상투쟁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경험도 얻고 사업방법도 배우게 되며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검열됩니다.

지금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녀대학생들가운데 당에 충실한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간부로 제발하면 녀성간부대렬을 빨리 늘일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녀대학생들은 몇해동안 생산로동에도 참가하고 사상투쟁도 벌리는 과정에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며 따라서 그들을 간부로 선발할 때에는 로동성분으로 보고 제발할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녀대학생들을 간부로 많이 선발하면 소조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리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에서 간부들을 많이 선발하면 3대혁명소조에 대한 옳은 인식도 줄수 있고 소조원들에게 자기 임무에 대한 영예감과 사업의욕도 더 높여줄수 있을것입니다. 얼마전에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남자대학생들가운데서 간부를 많이 선발하였는데 녀대학생들도 간부로 많이 선발하면 그들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클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대학생들을 간부로 등용하는것은 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록 대학을 나온지는 오래지 않고 나이도 어리지만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현실에 나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였고 앞으로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리라고 믿는데로부터 간부로 등용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에 나가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깊이 간직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일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간부들을 늘이기 위한 가장 파악있는 원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료해하고 키우신 녀성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수많은 녀성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에게 일하는 방법도 배워주시고 모든 일에서 앞장서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십니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회의들을 지도하시는 과정에도 많은 녀성들을 만나 료해하시고 그들이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키우신 이러한 녀성들은 모두 우리 당의 핵심들이며 가장 파악있는 간부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녀성들을 다 장악하고 그들이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계속 발전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속에서 간부를 많이 선발하여야 합니다.

녀성간부들을 빨리 늘이자면 간부를 료해하고 선발하

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간부료해사업에는 결함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일군들이 간부를 료해하는것을 보면 군중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료해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서 문건이나 보고 사람을 불러다 한두번 담화하는것으로 그치고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형식주의틀에 매여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일을 수공업적으로 하다보니 간부원천이 없다고 우는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간부료해사업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같은 생산단위들과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직접 군중속에서 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담화를 해보고 당조직의 의견과 군중의 여론도 들어보며 당, 근로단체 회의들에도 참가하여 정치사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고 부정과 투쟁할줄 알며 군중의 신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일군들을 찾아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건에만 매달려가지고는 간부를 똑똑히 료해선발할수 없습니다.

녀성간부를 선발하는데서는 사업경력을 지나치게 따

지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녀성일군들이 많지 못한 실정에서 사업경력을 따지면서 경험있는 일군만 찾으려 하여서는 녀성간부대렬을 빨리 늘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할수 없습니다. 경력이니 경험이니 하면서 녀성간부를 얼마 안되는 기성일군들속에서만 선발하려 할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 대담하게 선발하여 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간부의 표징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사업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일군만이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일군들가운데는 낡은 경험에 물젖어 요령주의를 부리면서 앉아뭉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력, 년령, 리력 가운데서 리력은 좀 보더라도 경력 같은것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특히 당사업 년한이나 경험을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당사업경험이라는것은 다 낡은 쑥대밭에서 배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낡은 쑥대밭에서 일하던 지난

날의 경험같은것은 다 백지화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낡은 경험을 자꾸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문제는 경력이나 경험에 있는것이 아니라 충실성에 있습니다. 충실성만 가지면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경험도 얻을수 있는것입니다.

녀성간부를 꾸리는데서 년령에 구애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상이 견실하고 당에 충실하면 나이가 많지 않은 처녀라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젊은 새 세대들은 처음에 실무수준이 좀 어릴수 있으나 혁명성이 강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드는 좋은 기질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틀에 매여서 사업에 제동기를 거는 사람들보다 젊고 패기있는 일군들이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기때문에 간부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간부혁명을 하자면 간부대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간부대렬의 신진대사는 지금 있는 간부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것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나이가 젊고 사상이 견실하며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더욱 촉진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상, 낡은 사업기풍에 오염되지 않은 젊고 참신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 우리 당을 언제나 패기에 넘치는 혁명적인 당,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녀성간부를 등용하는데서는 무슨 단계를 밟는 식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 군급 기관에 배치하고 다음에 도급 기관에 등용하며 그다음에 중앙급 기관에 등용하는 식으로 해서는 중앙급 기관들, 특히 당중앙위원회에 젊고 패기있는 녀성간부들을 들여오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준비되여있고 전망성이 있다면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나온 젊은 처녀들이라도 대담하게 도급 기관이나 중앙급 기관에 직접 배치할수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에도 들여올수 있습니다.

간부선발배치에서 전문지식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녀성들이 많은 경공업부문에서 녀성간부의 비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없다느니, 경력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새 세대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교육을 받은 새 세대들은 혁명관이 서 있고 진취성과 투쟁력이 강하기때문에 어느 부문에 배치하여도 일을 인차 배워 잘해나갈수 있습니다.사실 경공업부문 같은데는 별로 신비한것이 없습니다. 경공업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배워서 경공업부문에서 일을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녀성간부대렬을 처녀나 독신녀성으로만 꾸리려는 편향도 없애야 합니다. 녀성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시집을 가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는것은 인간생활에서 피할수 없는 일인것만큼 우리가 처녀들이나 독신녀성들만 데리고 일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가정부인들을 이제 간부로 올려놓아서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부인이라도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면 계속 간부로 발

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의도를 옳바로 인식하고 녀성간부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혁명적으로 달라붙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녀성일군들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형편에서 이 사업을 하루이틀에 다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녀성간부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몇개 단계를 설정하고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당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녀성간부후비들에 대한 료해를 잘할수 있습니다.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과정에 녀성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깊이 료해하고 검열된 녀성들을 간부로 많이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들에서 녀성간부의 비률을 높이는 사업은 결원간부를 될수록 녀성으로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남자들속에서만 간부후비를 찾아내려 하면서 결원간부를 채우지 못

하고있는데 녀성들속에서 준비된 일군들을 선발하여 등용하면 결원간부를 더 빨리 보충할수 있을것입니다.

녀성간부대렬을 짧은 기간에 빨리 늘이자면 조직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안의 모든 부서들이 녀성간부대렬을 늘이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녀성간부들을 키우고 선발등용하는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모든 부서들은 대상기관들의 간부대렬에서 녀성들의 비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동되여야 합니다.

녀성간부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사업에서 당중앙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와 웃단위의 중요한 기관들에서부터 녀성간부를 많이 등용하여야 아래단위들에서도 녀성간부비률을 높이는 사업을 잘 받아물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녀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녀성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녀성들에게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

고나가는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여주며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지금 녀성간부대렬이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 녀성간부들의 역할이 높지 못한것은 적지 않은 녀성들이 자기의 혁명초소와 혁명임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대신에 개인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집이나 일찍 가서 편안히 지내려고 하는데도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녀성들가운데는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실한 동무들이 많습니다. 벼 정당 10톤을 내기전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처녀관리위원장, 작업반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해놓고야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처녀작업반장과 같이 좋은 동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범적인 녀성들이며 녀성혁명가들입니다. 이런 녀성들은 사회와 집단,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언제나 희망과 락관에 넘쳐 살며 투쟁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우리의 모든 녀

성들이 이러한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녀성들이 시집을 간 다음에도 계속 자기 혁명임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녀성들속에는 처녀시절에는 한몫 단단히 하다가도 일단 시집을 가면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점차 식어지고 나중에는 가정에 파묻히고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녀성들이 혁명사업도 당적임무도 다 줴버리고 가정에 파묻혀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이나 드는것으로 세월을 한가히 보낸다면 락후해져서 옷타발이나 하게 되고 리기주의자가 되여버리고맙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자신을 망칠뿐아니라 아이들과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려는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회도 정치도 모르고 먹고 입는데만 취미를 가지고 산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녀성들이 가정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

는것은 사회를 위해서뿐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제도하에서 가정은 사회의 한 세포이며 가정생활은 곧 사회생활의 연장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려면 가정부터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녀성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가정과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녀성일군들이 조직생활도 잘하고 학습도 잘하도록 옳게 지도하며 사업조건도 원만히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빨리 발전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간부를 꾸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자들에 대한 교양도 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부인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자면 남자들이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녀성들은 남편때문에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지 못하며 사업에서 지장

을 받고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자기 안해에게 아이들이나 기르고 자기 뒤바라지나 하라고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당조직들은 남자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 그들자신이 모범적으로 일할뿐아니라 자기 안해도 혁명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동지적으로 성의껏 도와주게 하여야 합니다.

녀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녀성간부대렬을 늘이는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간부사업에서 정상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일군들이 녀성간부대렬을 빨리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단순히 간부구성에서 녀성비률을 지금보다 높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틀어쥐고나가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또다시 문제가 서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이 녀성간부후비들을 많이 장악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녀성로동계급이 많이 집결되여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미리 좋은 동무들을 후비로 장악하여 당조직이나 사로청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의 초급일군으로 일을 시키면서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간부양성기관들에서도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우며 당면하게는 녀성일군양성을 위한 특설반을 조직하고 거기에 좋은 녀성들을 넣어 빨리 양성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들에서 공부하고있는 녀학생들가운데서도 앞으로 간부로 선발할수 있는 똑똑한 학생들을 미리 료해장악하고 대학당조직들과의 련계밑에 사로청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단련도 시키고 사업방법도 배워주면서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녀성들을 대담하게 등용한 다음 실지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녀성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도 그들에게 문건정리만 시키고 사무실이나 지키게 하면서 일을 배워주지 않으면 결국 녀성들이 간부구실을 할수 없게 되며 녀성간부

대렬을 늘이는 보람이 없게 됩니다. 책임일군들은 녀성간부들을 지도사업에 데리고 나가 사업방법도 배워주고 단독임무를 주어 자립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담도 키워줌으로써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줄 아는 일군으로 자라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준비된 녀성들을 부직간부로 선발배치하여 앞으로 그들이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할수 있도록 실천투쟁속에서 배워주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간부대렬을 대담하게 늘이는것은 우리 당의 력사에서 전례없는 일이며 당간부사업에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녀성들을 간부로 선발육성하는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면 간부혁명을 다그치고 간부대렬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녀성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고 적극적으로 교양육성하여 녀성들속에서 당 및 정권 기관, 근로단체, 행정경제 기관의 유능한 간부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